

2014년도 대관료 지원사업 4차(7월 접수분) 심사평

대관료 지원사업은 국내 공연단체의 대관료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계획된 사업으로, 공연 대관료의 일부를 사후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대상 공연은 전문단체가 등록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을 대상으로 하며,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사의 자체기획공연 및 단체와 공동으로 기획하는 공연, 라이선스 뮤지컬, 동일 작품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은 제외 된다. 또한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단체, 협회, 학생들로 구성된 단체,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문예진흥기금을 미납한 단체, 지원을 받고 정산을 이행하지 않은 단체 역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심의는 공연단체의 역량(30%), 공연작품의 예술성(50%),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 및 파급효과(20%)를 기준으로 심의가 이루어졌는데, 총 71건이 신청되어 51건이 선정되었다.

금회 대관료 지원사업의 선정비율은 71.8%로 그동안의 평균선정비율(지난 4, 5, 6월 평균 선정비율 66.5%)보다 다소 높아졌다. 이는 신청 프로그램의 수준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주식회사, 협회 등 지원 제외사업 신청이 다소 줄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관료 지원사업이 민간예술단체의 창작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대관료 지원사업 심의위원 일동